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양식에 따른 문제행동 및 성격에 관한 연구

안 자 희

동작고등학교 교사

A Study on Stress Coping Styles, and Problem Behaviors and Personality in Youth

Ja-Hee Ahn

Dongjak High-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much students stress have, how they cope with this stress, differences between problem behaviors and personality changes based on stress, and stress differing levels when coping with the situation either actively or passively

The hypotheses were stated as follows

1. There will be differences between problem behaviors and personality problems based on sex.
2. There will be differences between problem behaviors and personality problems based on grade.
3. There will be differences between problem behaviors and personality problems based on stress level.
4. There will be differences between problem behaviors and personality problems based on a student's ability to cope with stress.
5. Upper level students under lower stress and lower level students under higher stress will have more problems behaviors and more personality problems.

300 male/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roughout the Seoul area were randomly selected. Of the 300 subjects that were sampled, 294 (Male=145, Female=149) actual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tress Scale developed by Lazarus & Folkman (1984) Problem Behavior Scale, Personality Problem Scale, and Checklist were used and the conclusions are stated as follows:

First, male students have more anti-social behavior and higher anti-social tendencies than fe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have more self-depreciation than male students.

Second, upper level students have more anti-social behavior, self-ego, fabrication, and higher personality problems than lower level students.

Third, students having too much stress have more anti-social behavior, self-ego, and fabrication and personality problems than students having less stress.

Fourth, students coping with stress actively showed less self-ego and fabrication and less thought disturbance, anti-social tendencies, and self-depreciation than students coping with stress passively.

Finally, upper level students under lower stress and lower level students under higher stress have more fabrication behaviors and more thought disturbance and self-depreci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시작하여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발달되어 가는 과정의 한 시기로 과도기적 성격 때문에 이중적 성격 즉, 주변인(周邊人, marginal man)으로 정신적, 신체적 불안정과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나는 "폭풍과 노도"의 시기이다(표갑수, 1986) 이 시기의 특징은 2차 성징을 포함한 신체발육과 이에 따르는 심리적, 사회적 주요 적응 기간으로 기본 변화가 심하고 우울반응과 적응장애를 많이 일으킨다 또한 발달단계로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에 직면해 있으며,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와 함께 모험이나 위험을 즐기며 성인들의 행위를 모방하려는 욕구들이 있다 즉, 발달단계 자체가 극적요소가 많고 재적응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스트레스와 불안이 발생한다(최신기, 1991, 보사부, 1993)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사회적·심리적 아노미(anomi), 그리고 무화지체 현상과 함께 급격한 서구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청소년들의 이탈과 비행 및 이상행동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구창모, 1991)

청소년기에 이르면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모든 욕구가 증대되고 지적, 감성적, 정서적 작용이 다양해지는 한편, 조화된 정신작용과 논리적 사고양태가 미흡한 까닭에 많은 갈등과 강한 욕구에 사로잡혀 정신적 방황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이길홍, 1990)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치열한 입시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등에 의해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되고 있고 극심한 경우 정서적 혼돈상태에 빠져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주기도 한다(안덕환, 1993)

이러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방법의 결여가 파생적인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제도나 정규 교육과정에는 청소년기의 발달론적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배양에 대한 접근이나 사회적 기술발달의 함양 등과 같은 영역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주혜경, 1994)

스트레스에 대하여 William Osler(1910)는 격심한 업무와 항상 외부의 압력과 탄압의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유태인들에게서 많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Walter Cannon(1925)이 그의 실험에서 투쟁 또는 도피반응에 관계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Hill 과 Zimbardo(1964)는 불안이 학생들의 성취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며, 방어성이 높은 학생들은 그들의 학교에서 성취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으며, Spence, J. T.와 Spence, K. W.(1966)는 단순한 반응을 요하는 과제의 경우에도 학습과 그 성취를 방해한다고 하였고, Goulet, L. R(1968)도 자신의 연구에서 Spence 등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용연(1988)은 문제행동에 대해 인간의 욕구에 있어서 가치관에 대한 갈등, 자기모순에 의한 사회적 부적응으로 일어나는 반사회적이고 비사회적 행동이라고 하였고, Loutlite C. W(1947)는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 지적 능력의 결함이나 기질적 능력의 결함을 제외한 행동상의 문제, 성격상의 문제를 제 1차적 문제행동이라고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기존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등에 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개인에 따라 그에 대처하는 양식에 따라 각기 그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다(문성원, 1991, 박현경 1992, Shaffer, 1936, Spielberger, 196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도와 변화를 알아보고 그 변화에 따른 능동적, 수동적 입장에서 적응과 부적응의 정도, 성격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고도로 발달되어 가는 산업사회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지적발달과 피동적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를 학생들은 어느 정도 받고 있고, 이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며, 스트레스에 따른 문제행동과 성격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와 주어진 상황요인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처하였을 때, 스트레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연구해 보고자 이러한 일련의 발생요인들을 문제점으로 추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 1)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과 성격문제의 차이는 있는가?
- 2) 학년에 따른 문제행동과 성격문제의 차이는 있는가?
- 3)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문제행동과 성격문제의 차이는 있는가?
- 4) 스트레스 대처수준에 따른 문제행동과 성격문제의 차이는 있는가?
- 5)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스트레스 대처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는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남녀 고교 4개교를 군집표집(cluster sampling)하여 남녀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자 6명을 제외하고 29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별로는 1학년이 197명(67%), 3학년이 97명(33%)이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145명(49%), 여학생이 149명(51%)이었다.

2. 자료수집 도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문제행동 그리고 성격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제작한 스트레스 검사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검사, 문제행동 검사 및 성격문제 검사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1) 스트레스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검사지는 본 연구자가 조사 수집한 80개 항목 중에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가정, 사회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 문항에 우선순위를 서술해 보도록 하여 그중 우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항목 35개를 선정하여 스트레스 검사도구를 제작하였다. 본 검사의 신뢰도는 신뢰계수 Cronbach $\alpha = .84$ 이다.

이 검사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고민한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1점으로 "매우 고민한다"는 5점으로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많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을 의미한다.

2) 스트레스 대처양식 검사

스트레스 대처양식 측정도구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체크리스트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한 개인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 나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Gutmann의 세 가지 환경 통제방식, 즉 능동적 대처, 수동적 대처, 신비적 대처양식으로 구분하여 측정되며 각 대처 양식별 10개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 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에게 부적합한 문항을 일부 삭제하고 능동적 대처 8개, 수동적 대처 8개, 총 16문항들을 무선적으로 섞어서 제시하고 본인이 어떤 대처양식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에서 체크하도록 하였다. 능동적 대처는 자아가능이 강렬하게 작용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결하려하고 외적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선택과 독립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수동적 대처는 외적환경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며 외적조건과 상황에 순응 또는 타협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일을 해결하려 하여 성취동기와 자율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3) 문제행동 검사

본 연구에 사용한 문제행동 검사는 학교나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 중에서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행동을 제외하고, 박용권(1988)이 조사 수집한 114개 항목 중에서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에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여 그중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 40개를 선정한 검사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반사회성 문제행동과 자기중심적 문제행동 및 허구성 문제행동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제행동의 검사문항 40개에 대하여 자기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체크하도록 하였다. 본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이다.

4) 성격문제 검사

본 연구에서 성격문제 측정은 Carlson이 제작한 사고혼란(Thought Disturban)검사, 반사회적 경향(Anti-Social Tendency)검사 그리고 자기멸시(self-Depreciation)검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각 질문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척도화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4$ 이다 사고혼란은 사고의 비조직화 혼돈, 지각내곡 및 비현실적 감정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높은 점수는 현실과 기리가 있는 성격문제를 보여 주는 것이다 반사회적 경향은 공격적인 증오와 사회적 빈향을 반영한 것으로 높은 점수는 임상적 증세의 성격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멸시는 자기자신은 과소 평가하거나 자기자신의 가치가 없다거나 자기능력에 신뢰가 없는 것으로 보는 성격문제를 나타낸다

3. 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문제 행동 그리고 성격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95년 10월부터 95년 12월 사이에 서울 시내 소재 남녀 고교 4개교를 군집표집하여 남녀 고교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업시간(50분)을 이용, 위에서 제작한 스트레스 검사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5분 후에 앞에서 언급한 문제행동과 성격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각 검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자료처리는 피험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측정치는 중앙치를 근거로 해서 스트레스 수준을 높음,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도 중앙치를 근거로 해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능동적 대처, 수동적 대처로 구분하였으며 문제행동과 성격문제는 각 검사의 하위요인별로 합산 점수를 구하였다

위의 조작된 조건에서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문제행동 및 성격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성별(2 남,녀), 학년(2 저학년 고학년), 스트레스 수준(2 낮음 높음), 스트레스 대처양식(2.수동적 대처, 능동적 대처)으로 구성된 요인설계로 이원변량분석 하였다

1)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문제 행동

성별, 학년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반사회성 문제행동의 평균을 정리하면 표 1과 같고, 이 결과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첫째 성별에 따른 반사

표 1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반사회성 문제행동양의 평균

성 별	학 년	스트레스수준	스트레스대처양식	
			수동적대처	1.38*
		낮음	(N=26)	(0.229)
		(N=59)	능동적대처	1.46
	저학년	(N=33)	(0.338)	
	(N=97)	수동적대처	1.53	
		높음	(N=22)	(0.351)
		(N=38)	능동적대처	1.48
	남자	(N=16)	(0.411)	
	(N=145)	수동적대처	1.60	
		낮음	(N=16)	(0.425)
		(N=28)	능동적대처	1.51
	고학년	(N=12)	(0.242)	
	(N=48)	수동적대처	1.89	
		높음	(N=10)	(0.432)
		(N=20)	능동적대처	1.75
			(N=10)	(0.280)
			수동적대처	1.30
		낮음	(N=22)	(0.463)
		(N=37)	능동적대처	1.14
	저학년	(N=15)	(0.096)	
	(N=100)	수동적대처	1.30	
		높음	(N=36)	(0.302)
		(N=63)	능동적대처	1.35
	여자	(N=27)	(0.295)	
	(N=149)	수동적대처	1.18	
		낮음	(N=7)	(0.186)
		(N=21)	능동적대처	1.35
	고학년	(N=14)	(0.329)	
	(N=49)	수동적대처	1.42	
		높음	(N=11)	(0.334)
		(N=28)	능동적대처	1.37
			(N=17)	(0.308)
	전체			1.42
	(N=294)			(0.357)

() 안은 표준편차

* 이 값이 클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임

III. 결과 및 논의

1. 결 과

표 2. 성별, 학년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반사회성 문제행동양에 대한 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성별(A)	4 196	1	4 196	38.698***
학년(B)	1 253	1	1 253	11 557***
스트레스수준(C)	0 978	1	0 978	9 025**
스트레스대처양식(D)	0 019	1	0 019	0 175
A×B	0 393	1	0 393	3 626
A×C	0 045	1	0 045	0 411
A×D	0 003	1	0 003	0 027
B×C	0 141	1	0 141	1 302
B×D	0 019	1	0 019	0 177
C×D	0 021	1	0 021	0 196
A×B×C	0 115	1	0 115	1 065
A×B×D	0 244	1	0 244	2 246
A×C×D	0 117	1	0 117	1 080
B×C×D	0 103	1	0 103	0 945
A×B×C×D	0 246	1	0 246	2 271
오차	30 145	278	0 108	
Total	37 228	293		

** P< 01

*** P< 001

회성 문제행동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38 698, P< 001], 남학생 집단(\bar{x} =1 53)이 여학생 집단(\bar{x} =1 31)보다 반사회성 문제행동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반사회성 문제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둘째, 학년에 따른 반사회성 문제행동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11 557, P< 001], 고학년 집단(\bar{x} =1 51)이 저학년 집단(\bar{x} =1 37)보다 반사회성 문제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셋째,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반사회성 문제행동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9.025, P< 01],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bar{x} =1 51)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bar{x} =1 38)보다 반사회성 문제행동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반사회성 문제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성별, 학년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의 평균을 정리하면 표 3과 같고 이 결과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4이다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첫째, 학년에 따른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5 232, P< 05], 고학년 집단(\bar{x} =2 59)이 저학년 집단(\bar{x} =2 47)보다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이 큼을 알 수 있

표 3.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양의 평균

성	별	학	년	스트레스수준	스트레스대처양식	평균
				수동적대처		2 37*
				낮음 (N=26)		(0 453)
				(N=59)	능동적대처	2 31
			저학년	(N=33)		(0 448)
			(N=97)	수동적대처		2 79
				높음 (N=22)		(0 454)
				(N=38)	능동적대처	2 41
			남자	(N=16)		(0 563)
			(N=145)	수동적대처		2 66
				낮음 (N=16)		(0 381)
				(N=28)	능동적대처	2 37
			고학년	(N=12)		(0 385)
			(N=48)	수동적대처		2 62
				높음 (N=10)		(0 503)
				(N=20)	능동적대처	2 66
				(N=10)		(0 622)
				수동적대처		2 42
				낮음 (N=22)		(0 498)
				(N=37)	능동적대처	2 16
			저학년	(N=15)		(0 578)
			(N=100)	수동적대처		2 66
				높음 (N=36)		(0 589)
				(N=63)	능동적대처	2 53
			여자	(N=27)		(0 426)
			(N=149)	수동적대처		2 63
				낮음 (N=7)		(0 748)
				(N=21)	능동적대처	2 27
			고학년	(N=14)		(0 557)
			(N=49)	수동적대처		2 88
				높음 (N=11)		(0 438)
				(N=28)	능동적대처	2 70
				(N=17)		(0 374)
			전체			2 51
			(N=294)			(0 520)

() 안은 표준편차

* 이 값이 클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임

다. 이는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보다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둘째,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20 669, P< 001],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bar{x} =2 65)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bar{x} =2.38)보다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이 큼을 알 수 있다 이

표 4 성별, 학년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양에 대한 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성별(A)	0.015	1	0.015	0.061
학년(B)	1.289	1	1.289	5.232*
스트레스수준(C)	5.092	1	5.092	20.669***
스트레스대처양식(D)	2.547	1	2.547	10.338***
A×B	0.072	1	0.072	0.293
A×C	0.189	1	0.189	0.769
A×D	0.019	1	0.019	0.075
B×C	0.030	1	0.030	0.120
B×D	0.010	1	0.010	0.040
C×D	0.016	1	0.016	0.066
A×B×C	0.087	1	0.087	0.355
A×B×D	0.110	1	0.110	0.447
A×C×D	0.249	1	0.249	1.011
B×C×D	0.496	1	0.496	2.013
A×B×C×D	0.343	1	0.343	1.391
오차	68.486	278	0.246	
Total	79.111	293		

*. P< 05

***. P< 001

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10.338, P< 001, 스트레스 능동적 대처집단(\bar{x} =2.42)이 스트레스 수동적 대처집단(\bar{x} =2.60)보다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능동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학생들이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을 적게 함을 의미한다

성별, 학년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허구성 문제행동을 정리하면 표 5의 같고, 이 결과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첫째, 학년에 따른 허구성 문제행동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5.024, P< 05, 고학년 집단(\bar{x} =2.61)이 저학년 집단(\bar{x} =2.48)보다 허구성 문제행동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보다 허구성 문제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둘째,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허구성 문제행동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27.690, P< 001),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bar{x} =2.70)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bar{x} =2.34)보다 허

표 5.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허구성 문제행동양의 평균

성	별	학	년	스트레스수준	스트레스대처양식	평균
				수동적대처		2.35*
				낮음	(N=26)	(0.566)
				(N=59)	능동적대처	2.20
				(N=33)	(0.538)	
			저학년	수동적대처		2.88
			(N=97)	높음	(N=22)	(0.392)
				(N=38)	능동적대처	2.35
			남자	(N=16)	(0.609)	
			(N=145)	수동적대처		2.65
				낮음	(N=16)	(0.592)
				(N=28)	능동적대처	2.50
			고학년	(N=12)	(0.406)	
			(N=48)	수동적대처		2.61
				높음	(N=10)	(0.370)
				(N=20)	능동적대처	2.54
				(N=10)	(0.547)	
				수동적대처		2.19
				낮음	(N=22)	(0.600)
				(N=37)	능동적대처	2.21
			저학년	(N=15)	(0.528)	
			(N=100)	수동적대처		2.82
				높음	(N=36)	(0.671)
				(N=63)	능동적대처	2.64
			여자	(N=27)	(0.561)	
			(N=149)	수동적대처		2.71
				낮음	(N=7)	(0.868)
				(N=21)	능동적대처	2.37
			고학년	(N=14)	(0.619)	
			(N=49)	수동적대처		2.90
				높음	(N=11)	(0.503)
				(N=28)	능동적대처	2.68
				(N=17)	(0.328)	
			전체			2.52
			(N=294)			(0.596)

() 안은 표준편차

* 이 값이 클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임

구성 문제행동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허구성 문제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허구성 문제행동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8.987, P< 01), 스트레스 능동적 대처집단(\bar{x} =2.42)이 스트레스 수동적 대처집단(\bar{x} =2.62)보다 허구성 문제행동이 적음을

표 6.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허구성 문제행동양에 대한 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성별(A)	0.062	1	0.062	0.200
학년(B)	1.557	1	1.557	5.624*
스트레스수준(C)	8.581	1	8.581	27.690***
스트레스대처양식(D)	2.785	1	2.785	8.987**
A×B	0.058	1	0.058	0.187
A×C	0.872	1	0.872	2.815
A×D	0.206	1	0.206	0.664
B×C	1.337	1	1.337	4.315*
B×D	0.000	1	0.000	0.001
C×D	0.370	1	0.370	1.134
A×B×C	0.010	1	0.010	0.032
A×B×D	0.681	1	0.681	2.197
A×C×D	0.088	1	0.088	0.283
B×C×D	0.585	1	0.585	1.887
A×B×C×D	0.015	1	0.015	0.047
오차	86.148	278	0.310	
Total	103.946	293		

* P< 05
 ** P< 01
 *** P< 001

알 수 있다 이는 능동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학생들이 허구성 문제행동을 적게 함을 의미한다 넷째, 학년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허구성 문제행동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F(1, 278)=4.315, P< 05)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학년과 스트레스 수준 상호작용을 단순 주효과 검증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고학년 집단($\bar{x}=2.54$)이 저학년 집단($\bar{x}=2.24$)보다 허구성 문제행동이 큼을 알 수 있다(F(1, 143)=9.05, P< 01) 즉,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보다 허구성 문제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고학년 집단($\bar{x}=2.69$)과 저학년 집단($\bar{x}=2.71$)의 허구성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 147)=0.056, n.s.)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반사회성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나 자기중심적 문제행동과 허구성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보다 반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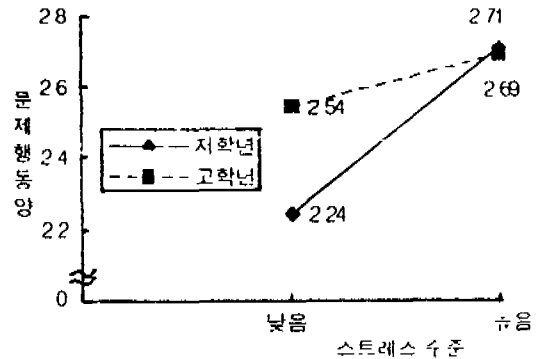


그림 1. 학년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허구성 문제행동양의 평균

성 문제행동과 자기중심적 문제행동 그리고 허구성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학년의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학생들보다 반사회성 문제행동과 자기중심적 문제행동 그리고 허구성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일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보다 자기중심적 문제행동과 허구성 문제행동을 적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성격문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사고혼란 성격문제의 평균을 정리하면 표 7과 같고, 이 결과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8이다.

표 8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첫째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사고혼란 성격문제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58.627, P< 001),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bar{x}=2.74$)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bar{x}=2.24$)보다 사고혼란 성격문제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사고혼란 성격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사고혼란 성격문제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17.494, p< 001), 스트레스 능동적 대처집단($\bar{x}=2.35$)이 스트레스 수동

표 7.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사고혼란 성격문제양의 평균

성 별	학 년	스트레스수준	스트레스대처양식	평균	
남자 (N=145)	저학년 (N=97)	낮음 (N=26)	수동적대처	2.30*	
			능동적대처	1.99	
		높음 (N=38)	수동적대처	3.08	
			능동적대처	2.47	
		고학년 (N=48)	낮음 (N=16)	수동적대처	2.52
				능동적대처	2.42
	높음 (N=20)	수동적대처	2.59		
		능동적대처	2.33		
	여자 (N=149)	저학년 (N=100)	낮음 (N=22)	수동적대처	2.22
				능동적대처	2.08
			높음 (N=63)	수동적대처	2.78
				능동적대처	2.75
고학년 (N=49)			낮음 (N=7)	수동적대처	2.40
				능동적대처	2.31
높음 (N=28)		수동적대처	3.09		
		능동적대처	2.53		
전체 (N=294)					2.49 (0.596)

() 안은 표준편차

* 이 값이 클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임

적 대처집단($\bar{x}=2.62$)보다 사고혼란 성격문제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능동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학생들이 사고혼란 성격문제가 적음을 의미한다 셋째, 학년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사고혼란 성격문제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F(1, 278)=9.217, P<0.01$)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표 8.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사고혼란 성격문제양에 대한 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성별(A)	0.779	1	0.055	0.196
학년(B)	0.065	1	0.027	1.510
스트레스수준(C)	0.427	1	16.575	58.627***
스트레스대처양식(D)	16.575	1	4.946	17.494***
A×B	4.946	1	0.207	0.734
A×C	0.207	1	0.191	0.675
A×D	0.191	1	0.713	2.523
B×C	0.713	1	2.606	9.217**
B×D	2.606	1	0.007	0.026
C×D	0.007	1	0.303	1.073
A×B×C	0.303	1	0.779	2.755
A×B×D	0.997	1	0.997	3.528
A×C×D	0.125	1	0.125	0.441
B×C×D	0.167	1	0.167	0.590
A×B×C×D	0.490	1	0.490	1.734
오차	78.596	278	0.283	
Total	109.219	293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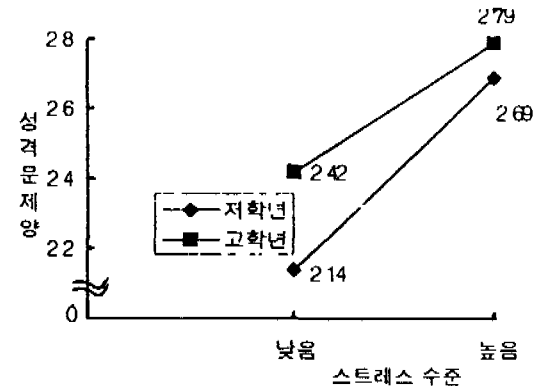


그림 2 학년,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사고혼란 성격문제양의 평균

학년과 스트레스 수준 상호작용을 단순 주효과 검증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고학년 집단($\bar{x}=2.42$)이 저학년 집단($\bar{x}=2.14$)보다 사고혼란 성격문제가 큼을 알 수 있다($F(1, 143)=10.273, P<0.01$) 즉,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보다 사고혼란 성격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반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고학년 집단($\bar{x}=2.79$)과 저학년

표 9.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의 평균

성	별	학	년	스트레스수준	스트레스대처양식		
남자 (N=145)	저학년 (N=97)	낮음 (N=59)	수동적대처	2.27*	(0.542)		
			능동적대처	2.32	(0.563)		
		높음 (N=38)	수동적대처	2.95	(0.532)		
			능동적대처	2.50	(0.462)		
		고학년 (N=48)	낮음 (N=28)	수동적대처	2.57	(0.463)	
			능동적대처	2.44	(0.500)		
	여자 (N=149)	저학년 (N=100)	낮음 (N=37)	수동적대처	2.25	(0.421)	
				능동적대처	2.07	(0.305)	
		높음 (N=63)	수동적대처	2.52	(0.545)		
			능동적대처	2.48	(0.361)		
		고학년 (N=49)	낮음 (N=21)	수동적대처	2.56	(0.549)	
			능동적대처	2.28	(0.470)		
전체 (N=294)		수동적대처	2.74	(0.530)			
		능동적대처	2.72	(0.451)			
					2.48	(0.596)	

() 안은 표준편차

* 이 값이 클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임

집단($\bar{x}=2.63$)의 사고혼란 성격문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 147)=2.389, ns$)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의 평균을 정리하면 표 9와 같고, 이 결과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성별, 학년별,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에 대한 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성별(A)	1.210	1	1.210	5.121*
학년(B)	1.472	1	1.472	6.230*
스트레스수준(C)	7.615	1	7.615	32.233***
스트레스대처양식(D)	1.060	1	1.060	4.487*
A×B	0.583	1	0.583	2.468
A×C	0.000	1	0.000	0.000
A×D	0.055	1	0.055	0.232
B×C	0.307	1	0.307	1.298
B×D	0.004	1	0.004	0.018
C×D	0.072	1	0.072	0.304
A×B×C	0.282	1	0.282	1.193
A×B×D	0.048	1	0.048	0.202
A×C×D	1.189	1	1.189	5.031*
B×C×D	0.361	1	0.361	1.528
A×B×C×D	0.125	1	0.125	0.530
오차	65.673	278	0.236	
Total	79.215	293		

* $P < 0.05$

*** $P < 0.001$

표 10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첫째, 성별에 따른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5.121, P < 0.05$) 남학생 집단($\bar{x}=2.51$)이 여학생 집단($\bar{x}=2.44$)보다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둘째, 학년에 따른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6.230, P < 0.05$), 고학년 집단($\bar{x}=2.57$)이 저학년 집단($\bar{x}=2.43$)보다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보다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셋째,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32.233, P < 0.001$),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bar{x}=2.63$)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bar{x}=2.32$)보다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넷째,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4.487, P < 0.05$), 스트레스 능동적 대처집단($\bar{x}=2.41$)이 스트레스 수동적 대처집단($\bar{x}=2.54$)보다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능동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학생들이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적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성별과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F(1, 278) = 5.031, P < 0.05$)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3과 4이다

성별과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 상호작용을 단순 주효과 검증결과 남학생 집단이며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능동적 대처집단($\bar{x} = 2.38$)과 스트레스 수동적 대처집단($\bar{x} = 2.36$)에서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나($F(1, 85) = 0.06, n.s.$) 반면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능동적 대처집단($\bar{x} = 2.52$)이 스트레스 수동적 대처집단($\bar{x} = 2.87$)보다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F(1, 56) = 7.791, P < 0.01$) 즉 능동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학생들이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적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학생 집단이며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는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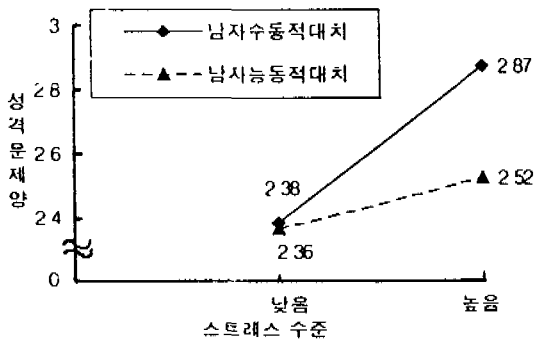


그림 3 남학생의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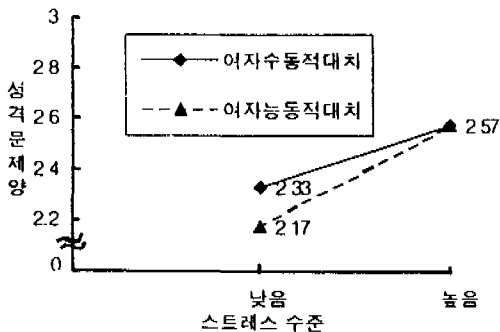


그림 4 여학생의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양

트레스 능동적 대처집단($\bar{x} = 2.17$)이나 수동적 대처집단($\bar{x} = 2.33$)에서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 56) = 1.881, n.s.$)

또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도 스트레스 능동적 대처집단($\bar{x} = 2.57$)과 스트레스 수동적 대처집단($\bar{x} = 2.57$)에서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의 차이가 나타나

표 11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자기평가 성격문제양의 평균

성	학	년	스트레스수준	스트레스대처양식	평균	
남자	저학년	(N=97)	낮음	수동적대치	2.71*	
				능동적대치	2.50	
		높음	수동적대치	3.27		
			능동적대치	3.25		
		고학년	(N=48)	낮음	수동적대치	2.95
					능동적대치	2.95
	높음	(N=20)	수동적대치	2.88		
				능동적대치	3.00	
	여자	저학년	(N=100)	낮음	수동적대치	2.83
					능동적대치	2.84
					수동적대치	3.43
		고학년	(N=49)	낮음	수동적대치	3.30
능동적대치					3.05	
수동적대치					3.01	
전체	(N=294)	높음	수동적대치	3.60		
			능동적대치	3.10		
			수동적대치	3.10		

() 안은 표준편차

* 이 값이 클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임

지 않았다($F(1, 89)=0.660, n.s$)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자기말시 성격문제의 평균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고, 이 결과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첫째, 성별에 따른 자기말시 성격문제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9.302, P< .01$), 여학생 집단($\bar{x}=3.18$)이 남학생 집단($\bar{x}=2.88$)보다 자기말시 성격문제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기말시 성격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둘째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자기말시 성격문제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9)=45.367, P< .001$)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bar{x}=3.27$)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bar{x}=2.79$)보다 자기말시 성격문제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자기말시 성격문제가 큼을 의미한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자기말시 성격문제의 차이가 유의하여($F(1, 278)=3.867, P< .05$), 스트레스 능동적 대처집단($\bar{x}=2.96$)이 스트레스 수동적 대

처집단($\bar{x}=3.10$)보다 자기말시 성격문제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능동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학생들이 자기말시 성격문제가 적음을 의미한다 넷째, 학년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자기말시 성격문제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F(1, 278)=11.146, P< .001$)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학년과 스트레스 수준 상호작용을 단순 주효과 검증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고학년 집단($\bar{x}=2.98$)이 저학년 집단($\bar{x}=2.69$)보다 자기말시 성격문제가 큼을 알 수 있다($F(1, 143)=8.557, P< .01$) 즉,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보다 자기말시 성격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고학년 집단($\bar{x}=3.15$)과 저학년 집단($\bar{x}=3.33$)의 자기말시 성격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 147)=3.86, n.s$)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기말시 성격문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보다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학생들보다 사고혼란 성격문제와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 그리고 자기말시 성격문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자기말시 성격문제양에 대한 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성별(A)	2.816	1	2.816	9.302**
학년(B)	0.263	1	0.263	0.869
스트레스수준(C)	13.733	1	13.733	45.367***
스트레스대처양식(D)	1.171	1	1.171	3.867
A×B	0.095	1	0.095	*0.313
A×C	0.004	1	0.004	0.013
A×D	0.089	1	0.089	0.294
B×C	3.374	1	3.374	11.146***
B×D	0.007	1	0.007	0.023
C×D	0.002	1	0.002	0.005
A×B×C	0.760	1	0.760	2.512
A×B×D	0.586	1	0.586	1.935
A×C×D	0.729	1	0.729	2.409
B×C×D	0.130	1	0.130	0.429
A×B×C×D	0.056	1	0.056	0.183
오차	84.155	278	0.303	
Total	111.552	293		

* $P< .05$

** $P< .01$

***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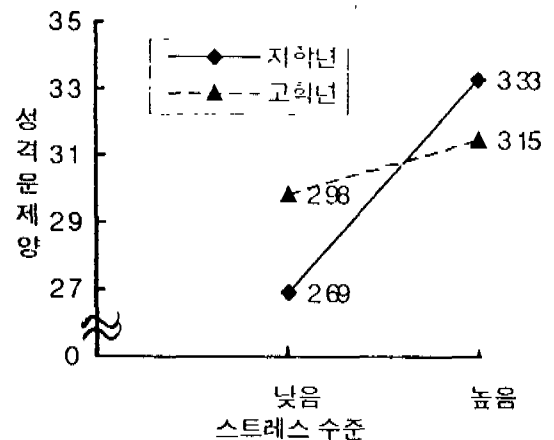


그림 5 학년,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자기말시 성격문제양의 평균

넷째,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보다 사고혼란 성격문제와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 그리고 자기멸시 성격문제가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반사회성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높은 데 반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기멸시 성격문제가 높았다

둘째,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보다 반사회성 자기중심적, 허구성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높았다

셋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학생들보다 반사회성, 자기중심적 허구성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사고혼란 반사회성 경향, 자기멸시 성격문제가 높았다

넷째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보다 자기중심적, 허구성 문제행동을 적게 하며 사고혼란, 반사회성 경향, 자기멸시 성격문제가 낮았다

나섯째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는 고학년이 허구성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사고혼란, 자기멸시 성격문제가 높으며,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저학년이 허구성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사고혼란, 자기멸시 성격문제가 높았다

2. 논 의

앞의 분석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의 주요한 추론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문제행동은 $P < .001$ 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반사회성 문제행동이 크게 나타나고 고학년일수록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반사회성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그만큼 반사회성 문제행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은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학년 집단이 저학년 집단보다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자기중심적 생활을 많

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생이 수동적인 학생보다 자기중심적 문제행동을 적게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셋째,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허구성 문제행동은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이고 $P < .01$ 에서 능동적 대처 학생이 수동적 대처 학생보다 허구성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이 허구성이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능동적인 입장으로 대처하는 학생이 위에서 추론한 바와 같이 허구성의 문제행동을 적게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성격 문제에서는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능동적 대처 학생과 수동적 대처 학생 집단도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이 사고혼란 성격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이 성격문제 역시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반사회성 성격문제에서는 $P < .05$ 에서 유의한 차가 보이며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학년에 따른 차이도 $P < .05$ 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반사회성 경향의 성격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고학년 학생들보다 저학년 학생들보다 반사회성 경향이 많음을 알려 준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성별, 학년,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른 자기멸시 성격문제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기멸시가 $P < .01$ 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고 있고 $P < .05$ 에서 능동적 대처양식과 수동적 대처양식의 학생집단이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멸시의 성격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능동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하는 학생들이 수동적인 학생들보다 성격문제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놓고 볼 때 성별, 학년에 따라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음이 확실하고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즉, Maslow의 욕구 5단계설에서 처럼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활동, 지향적인 성취동기를 가질 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문제행동, 성격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시내 소재 인문계 남녀 고교 4개교를 군집표집하여 남녀 고교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들 중 설문지 응답에 누락이 있는 6명을 제외시키고 최종 294명(남자 145, 여자 149)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스트레스 검사, 문제행동 검사 및 성격문제 검사와 Lazarus와 Folkman(1984)의 체크리스트 검사지를 이용하여 번안제작한 스트레스 대처양식 측정 검사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반사회성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반사회성 경향의 성격문제가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멸시 성격문제가 높았다.

둘째 고학년 학생들은 저학년 학생보다 반사회성, 자기중심적, 허구성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반사회성 경향 성격문제가 높았다.

셋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학생들보다 반사회성, 자기중심적, 허구성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사고혼란, 반사회성 경향, 자기멸시 성격문제가 높았다.

넷째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보다 자기중심적, 허구성 문제행동을 적게 하며 사고 혼란, 반사회성 경향, 자기멸시 성격문제가 낮았다.

다섯째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는 고학년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는 저학년이 허구성 문제행동을 많이 하였고 사고혼란, 자기멸시 성격문제가 높았다.

참고문헌

- 1 고 병래, 불안과 학업성적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 3집, 1984
- 2 구 창모, 체육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1호, 1991
- 3 김 수방,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 4 김 수천, 문답유형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70
- 5 김 이천, 내외제적 통제의 소개와 학업성취 및 시험불안

- 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7
- 6 김 필식,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5
- 7 김 홍규, 청소년 문제행동의 분석 연구, 인하대 논문집 4집, 1976
- 8 나 장기, 전략 및 능력, 귀인조작이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 9 문 성원, 인지적 평가와 사회적 지지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 10 박 용권,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학생, 학부모, 교사의 지각차, 석사학위논문, 한양 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 11 박 성수, 문제행동의 교육과 치료, 서울 배영사, 1988
- 12 박 현경, 서울 시내 상업고교 여학생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심각성 정도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
- 13 보건사회부, 학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교재, 1993
- 14 서 봉연, 성격과 적응, 서울 익문사, 1972
- 15 안 덕환, 과의 자율체육활동이 생활만족과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32권 제2호, 1993
- 16 유 영남, 심리적 준거집단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 17 윤 미영, 시험의 세단계에 따른 인지평가와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변화와 그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 18 이 길홍,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 11권 2호, 1990
- 19 이 상노, 성격과 행동지도, 중앙적성연구소, 1979
- 20 이 영애, 자아존중감과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 21 이 현수, 이상행동의 일반적 원인, 서울 현대교육 총서 출판사, 1988
- 22 조 옥귀, 성공에 대한 귀인이 학습된 무력감과 우울증의 완화에 미치는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0
- 23 조 정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비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85
- 24 조 창희, 청소년 비행 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1
- 25 주 혜경, 일부 남자고교생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휴연의 관계연구, 학교보건학회지 제7권 2호, 1994
- 26 최 선화,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집단 사회사업적 개입 모형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094

- 27 표갑수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방안, 청소년 제 34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1986
- 28 Atkinson, J W .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New Jersey Von Nostrand Reinhold, 1964
- 29 Ausubel, D P Educational Psychology Holt, Rinehart & Winston, 1968
- 30 Bondura A Social learning theory New Jersey General Learning Press, 1971
- 31 Easterbrook, J A . The effect of emotion of the util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1959
- 32 Gibson J T . Psychology for the classroom New Jersey Prentice-Hall, 1976
- 33 Cronbach L J & Snow, R e . Attitudes and instructional methods New York Irvington, 1977
- 34 Jung, J . Understanding Human Motiv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1978
- 35 Lazarus, R S Pattern of Adjustment New York McGraw-Hill, 1976
- 36 Levitt, e e The psychology of anxiety New York The Bobbs-Merrill
- 37 Maddi, S R . Personality Theories Homewood Illinois The Dorsey Press, 1980
- 38 Montague, E.K., The role of anxiety in serial rote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53
- 39 Silberman, R.E . & Blitz, B., Learning and two kinds of anxie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6
- 40 Spielberger, C D & Katzenmeyer, W G . Manifest anxiety, intelligence, and College Gra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59
- 41 Taylor, R g personality traits and discrepant achievement a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64
- 42 Tobias S Achievement treatment interac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76
- 43 Wine, J . Test anxiety and the direction of attention Psychological Bullentin, 1971